

###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창조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창조’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게 하시고 새 자아를 창조하시듯이 분단국가를 통일국가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세 이야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2024년 2월 8일에 열린 건군절 76주년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평의 주적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도의 통일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의 북한 정권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1990년 11월 30일 「노동신문」에서 “일부 경제교류나 제한된 사람들의 내왕이나 하자는 것은 현재의 분열 상태를 유지한 채 켄렁켄렁 살아가자는 것으로 두 개 조선 조작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김정은이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폐기한다는 선언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유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자신들의 역사와 교과서뿐 아니라 통일 관련 상징물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통일과 민족 개념이 주입되어 있던 북한 주민들도 재교육해야 합니다.

이 같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전쟁이나 상시적인 무력 충돌을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두 국가론이 남북한 간의 영구적인 분단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국가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관하여 자유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기반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4월 1일에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사명으로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번영, 지속가능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아무리 통일을 부정하고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역사가 가리키는 방향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통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은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야기하는 두 국가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때일수록 통일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남북한 간의 화해를 통하여 한반도에 세워질 새로운 통일국가를 지속적으로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북한 지도자

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통일의 의지를 붙들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지혜를 주셔서 분단을 통일로 전환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식어가는 통일의 열정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손을 잡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민족의 분단을 통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담아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통일되어서 2천 6백만 북한 주민과 5천만 남한 주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소서.

###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탈북민 목회자들의 연합체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에는 약 200여 명의 탈북민 목회자와 신학생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탈북민 선교가 맺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온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 중 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약 1/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탈북민은 작은 통일을 경험하는 선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들의 남한 적응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북녘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인 탈북민들의 정착과 건강,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탈북민 신학생들이 거룩한 지도자로 양성되기를 기도합니다.

### 말씀 나눔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선언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는 이제껏 그를 얽매고 있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고후 5:17)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얽매어 있던 옛 자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인 과거 바울의 모습은 분단에 얽매인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이 옛 자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은 것처럼 우리 민족도 분단을 벗어나 온전히

하나 된 국가를 이루기를 간구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바울 안에 거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 6:5).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는 고백처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 자아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고후 5:18).

우리는 남북한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오랜 분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의 공동체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가시는 통일국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는 자신의 대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단에서 벗어나 통일된 국가가 되게 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빛나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굳건한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신의 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새 자아를 창조해주셔서 우리를 최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분단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국가의 미래를 창조해가실 것을 믿습니다.

## 신학적 관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바울의 고백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갈 2:20)을 창조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을 ‘파괴하기’로 해석한 미국의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와 달리 이를 ‘중심에서 벗어나기’(de-centering)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자아를 재설정하기’(re-centering)로 해석합니다.

볼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의 참여(롬 6:5)로 연결합니다. ‘중심에서 벗어나기’(de-centering)는 ‘새로운 것에 연결하기’(re-centering)<sup>1)</sup>로 이어집니다. 그는 ‘중심에서 벗어나기와 새로운 것에 연결하기’를 하나님의 창조 행위인 ‘분리와 결합’(separating-and-binding)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볼프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Cornelius Plantinga)가 쓴 『우리의 죄 하나님의 살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106.

롭』(*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에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분리하기’와 ‘결합하기’로 기술<sup>2)</sup>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위해서 ‘분리’(separating)를 시작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밤에서 낮을, 땅에서 물을, 땅에 다니는 것에서 바다 생물을 분리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결합(binding)하십니다. 그분은 청지기이자 돌보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다른 존재와 결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분리와 결합의 행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분단을 넘어 우리 민족을 통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분단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피조물을 속에서부터 혹은 밖에서부터 파괴하여 그 기원인 ‘혼돈하고 공허한’(‘토후바보후’) 상태로 되돌리는 파괴적인 회오리바람(devastating twister)”입니다.<sup>3)</sup> 죄의 더 직접적인 목표는 창조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기보다 그 상호의존성의 형식을 폭력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결합하는 것”<sup>4)</sup>입니다.

우리 남북한은 한민족으로 이뤄진 하나의 국가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분단국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단국가를 통일국가로 바꾸시는 창조를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창조하심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2) 위의 책, 106, 재인용.

3) 위의 책, 100, 재인용.

4) 위의 책, 100, 재인용.